



제목	The Last Ottoman Generatio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8. 18.
저자	Michael Provence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314
ISBN 또는 ISSN	978-0521747516

#### 내용 요약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세대와 현대 중동의 형성』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시기에 군사학교에 입학한 세대를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지도력과 현대 중동의 탄생 과정을 그린 책이다. 오스만 제국 시기의 중동과 식민지 시대의 중동의 연속성을 강조한 저자 프로방스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중동의 갈등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 ‘19세기 오스만의 근대성’은 오스만의 군사 엘리트들이 유럽과의 경쟁으로 근대화에 자극을 받아 군사 훈련을 강조하는 현상을 담았다. 1880~1890년대 오스만의 엘리트들은 독일 군사 모델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다. 2장 ‘오스만 이후 중동의 식민주의 이론과 관행’, 3장 ‘전쟁의 실패와 정착 싸움’은 1918~1922년까지 유럽 국가들이 중동 지역의 분할에 관한 논쟁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도력에 대해 느낀 향수를 논하였다. 4장 ‘1923~1927년 오스만 시대 이후의 무장 투쟁의 회귀’는 민족주의적 동맹, 칼리프 지위의 종결,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의 상황, 시리아 반란의 종결 등을 서술하였다. 5장은 ‘1927~1936년 오스만 시대 이후의 군국주의’를 설명하였다. 대공황 시대의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붕괴는 아랍 엘리트들 사이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6장 ‘1936~1938년 오스만의 마지막 세대’에서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갈등, 팔레스타인에서의 반란, 시리아 독립을 서술하였다. 7장 결론에서 저자는 오스만 제국의 붕괴 후 엘리트들 사이에 오스만 제국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았다.